

석사학위논문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순 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양 은 희

2004년 8월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순 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7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양은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양 은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박 순 방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열이 높아지고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아동에게 조기 음악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지 아이를 음악 전문가가 되도록 양육함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정서함양, 자기표현 등의 교육을 음악교육을 통해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의 조기 교육을 시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악기는 피아노이다. 피아노는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의 세 분야의 기능을 고루 구비하고 있어 음악적 소우주적인 장점을 가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악기이다. 뿐만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을 다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양쪽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배우는 아동에게 자신감과 성취감 등을 가지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시기이며 조기교육을 하는데 적합한 범위라고 음악학자들이 제안하는 4-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시기의 아동은 음악 능력을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요소가 할 수 있는 감각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게 될 뿐 아니라 감각기능 중 청각기능은 6세경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되기 때문이다.

본문의 II장에서는 피아노 조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 피아노 교수법의 개념, 피아노 조기 교육의 필요성,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의한 음악적 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피아노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교사의 역할 및 자질이다. 교사는 학생이 학습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사명을 갖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하며 늘 연구하는 태도로 삶과 예술에 대한 미의 통찰력을 길러주고 피아노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로는 부모인데, 부모는 자녀의 학습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학습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아동을 칭찬을 해 줌으로써 피아노 치는 것이 즐겁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요소로 교재 선택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학원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인 바이엘 피아노 교본, 베스틴 피아노 교본,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들의 구성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교재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네 번째 요소는 레슨 형태인데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개인지도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룹지도를 병행한다면 그룹지도의 장점들을 살려 더욱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에서는 피아노 조기 교육의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으로서 첫째, 연주 자세, 손모양과 손가락의 움직임, 손목의 움직임 등이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음악의 토대가 되고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리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지 살펴보았다. 리듬은 강약의 위치와 정확한 리듬의 분할, 주기적인 박자에서 리듬의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에게 리듬은 걷거나, 뛰거나, 손뼉을 치거나, 노래하는 등 신체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독보와 초건을 살펴보았다. 참된 독보력이란 음표와 리듬 그리고 다른 음악적 표시를 통해 작곡자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간단한 곡이라도 곡이 주는 느낌을 어린이와 함께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초건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곡을 선택할 때 아동이 배우고 있는 곡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단계의 곡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짧으면서도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 다양한 화음, 리듬 등이 고루 포함된 것이 좋다.

넷째, 시창과 청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창은 감각적 기호와 악보의 이해 및 가창의 기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창은 악보 보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음정과 리듬을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시창을 잘 배우게 되면 소리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게 되며, 음과 음 사이의 높낮이를 느낌으로써 음정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노래를 하면서 어디서 숨을 쉬는지 파악하게 되어 프레이징 감각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청음은 음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리듬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음정과 이름을 오선 위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것을 충분히 훈련한 뒤에 아동들에게 간단한 단선율과 가락을 받아 적게 하여 리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창과 청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선 안 된다. 이는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이므로 음악 교육의 초기부터 철저히 교육되어야 한다.

다섯째, 창작 및 즉흥연주의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창작학습에 있어서는 먼저 각종 음표와 쉼표의 개념을 익히게 한 다음, 오선에 의한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천둥소리, 빗방울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메아리 소리 등 어떤 특정한 소리를 표현하도록 훈련한다면 창조력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많은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피아노 주법으로 톤과 터치, 레가토, 스타카토, 프레이징,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트릴을 제시하였다.

피아노 초기 교육은 연주의 기교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배우는 아동들에게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도모하며, 포괄적인 음악지도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력과 예술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성 함양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초기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동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음악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과 범위	2
II. 피아노 조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	3
1. 피아노 교수법의 개념	3
2. 피아노 조기 교육의 필요성	4
3.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의한 음악적 발달단계	7
1) 1단계: 감각운동기(The Sensory Moter Period: 0-2세)	9
2) 2단계: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	10
3) 3단계: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s Period: 7-11세)	11
4) 4단계: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s Period: 11세 이후)	12
III. 피아노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14
1. 교사의 역할 및 자질	14
2. 부모의 역할	16
3. 교재 선택	17
1) 바이엘 피아노 교본	18
2) 베스틴 피아노 교본	20
3)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	23
4. 레슨형태	24
1) 개인지도	24
2) 그룹지도	25
IV. 피아노 조기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	31
1. 바른 자세	31
1) 연주 자세	31

2) 손모양과 손가락의 움직임	33
3) 손목의 움직임	35
2. 리듬교육	38
3. 독보와 초견	41
1) 독보	41
2) 초견	43
4. 시창과 청음	43
1) 시창	43
2) 청음	44
5. 창작 및 즉흥연주의 지도	45
6. 피아노 주법	46
1) 톤과 터치	46
2) 레가토(Legato)	48
3) 스타카토(Staccato)	49
4) 프레이징(Phrasing)	50
5) 스케일(Scale)과 아르페지오(Arpeggio)	53
6) 트릴(Trill)	54
V. 결 론	56
참 고 문 헌	60
Abstract	62



그림 목차

<그림 1> 아동이 피아노에 앉는 자세	32
<그림 2> 아동의 손모양	34
<그림 3> 손가락, 손목, 팔의 동작	36
<그림 4> 손목의 움직임	37
<그림 5> 신체동작을 통한 리듬 훈련	39
<그림 6> 음표 노래 부르기과 박수치기	40
<그림 7> 음표 노래 부르기과 발 구르기	40
<그림 8> 번갈아 가며 따라 부르기	41
<그림 9> 손목을 낮게 한 위치	51
<그림 10> 손목을 높게 한 위치	51
<그림 11> 말로 표현하기	52
<그림 12> 손목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화살표	5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 가정의 교육열도 높아졌다. 그러면서 조기교육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그 열풍 속에 음악교육도 빼 놓을 수 없다. 아동들은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은 미숙하지만 성장속도와 지능속도는 매우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악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조기 음악교육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거의 필수 학습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피아노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에 비해 음정이 고정되어 있어서 음감을 훈련시키는데 좋을 뿐 아니라 음역이 넓고 악보와 건반의 관계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화성악기와 선율악기의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며 오른손, 왼손, 페달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리듬, 가락, 화성 등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음악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아노 교육이 보편화 되어지면서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배운 다기 보다는 취미로 배우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피아노 조기 교육은 아동의 음악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기술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며 바른 심성과 정서를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또한 피아노를 통한 감각 계발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의 발달에 따른 적기 교육으로 올바르게 효율적인 음악적 감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피아노 조기 교육은 아동들의 발달단계나 음악적인 배경은 간과 한 채 피아노 연주의 기

교나 기술 습득에만 치우쳐 있어 많은 아동들이 피아노 학습에 싫증과 거부감을 느끼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아노 조기교육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 범위는 본 논문의 주제가 피아노 조기 교육이기 때문에 주로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시기인 4-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II장에서 피아노 조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 피아노 교수법의 개념, 피아노 조기 교육의 필요성,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의한 음악적 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피아노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교사의 역할 및 자질, 부모의 역할, 교재의 선택, 레슨 형태를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피아노 조기 교육의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으로서 바른 자세, 리듬 교육, 독보와 초견, 시창과 청음, 창작 및 즉흥 연주의 지도, 피아노 주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피아노 조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피아노 교수법의 개념

교육이란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는 지능에, 정서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어 인격이 계발되고 성숙되게 함에 있다. 곧 교육을 잘 하면 사람의 인격이 자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아노 교육이란 피아노를 통하여 아름다운 음악적 내용들을 이해하고 느끼고 표현하며 만듦으로서 음악적인 인격이 학생들 안에 자라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다.¹⁾

피아노 교수 행위는 피아노가 악기로 존재할 때부터 이어져 왔다. 피아노 악기의 발달과 함께 피아노 교수법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좀 더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추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아동들의 성격과 음악적 재질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며 피아노를 배우게 된 동기도 각각 다르다. 그렇다 할지라도 피아노란 악기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악곡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교습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정한 지도목표를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과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선생의 교습방법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학생은 음악에 대한 신념과 흥미를 잃게 되며 자신의 표현이 소극적이 된다.²⁾ 그러므로 학생의 흥미를 유도시켜 줄 수 있어야 하고 지도방법이 항상 계획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

1) 오세집(1998), 「피아노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도서출판 상지원, p.113.

2) 송정이(1994),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p.8.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습내용에 있어서는 기교면은 물론이고 음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도방향은 표면에 나타나는 기교와 단순한 악상의 표현에 그 교습내용이 중점이었다면 근대의 교습방법은 학생의 지적감각이 발달되도록 유도하며, 음악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2. 피아노 조기 교육의 필요성

최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최초의 5년간은 지식발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아동에게 피아노 공부를 통해 음악을 소개 한다면 순수한 음악적인 요소를 넘어 다른 교육적 경험을 얻어 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³⁾

일반적으로 유 · 아동기는 신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불미스러운 상태이고, 비사회적이기는 하지만, 발달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⁴⁾ 유 · 아동기는 음악능력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음악 감각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게 될 뿐 아니라 감각기능 중 청각기능은 6세경에 이미 성인수준으로 발달된다.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조셉 호프만(Josef Hofmann)은 “모든 음악적인 훈련은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며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3) James W. Bastien, 「피아노 교수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정정식 역(1981), 세광출판사, p.87.

4) 성경희(1988),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과 특성」, 세광음악출판사, pp.72-73.

보다 빠른 연령에서 올바른 음악교육에 의하여 훌륭한 음악가로서 대성할 수 있다.”고 조기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헝가리 음악교육가인 코다이(Zoltan Kodaly)는 4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기야말로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불어넣어 주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확신했으며 아동의 일생에 결정적인 음악적 경험은 6세에서 16세 사이에 얻어지며 이때가 더 나이 들어서 보다 쉽게 배우고 재능도 잘 늘어난다고 하였다.⁵⁾

이렇게 음악의 조기 교육이 강조되면서 일찍 음악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조기 음악교육을 받음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악기가 바로 피아노다. 다른 악기들에 비해 피아노가 더 큰 호응을 받는 이유는 피아노가 서양음악의 역사와 함께 음악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이며 효과적인 가치성을 부여하는 종합악기이기 때문이다. 피아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악기 분류에도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으로 세 분야의 기능을 고루 구비하고 있으므로 음악적 소우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⁶⁾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정이 고정되어 있다. 음성, 현악기, 관악기 등은 연주자 스스로가 음정을 만들어 내야하지만 피아노는 음정이 고정되어 있어 음감을 훈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모든 악기들의 음역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피아노는 독주와 반주 뿐 아니라 합주의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다.

셋째, ‘피아노의 얼’이라 할 수 있는 페달을 가지고 있어 음색과 음량의 변화를 준다.

넷째, 악보와 건반의 유기적 관련을 갖는다. 피아노는 두 단의 오선악보와 두 손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과의 규칙적인 배열 등이 자연스러워

5) Erzebet Szonyi, 「코다이 음악 교수법」, 조흥기 역(1998), 도서출판 다라, p.44.

6) 박찬석(1987), 「피아노 교수학」, 세광음악출판사, p.22.

학습에 매우 편리하다.⁷⁾

다섯째, 건반악기와 타악기, 현악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건반을 사용하여 푸가와 같은 대위법적인 다성부곡을 연주 할 수 있으며, 화성적인 표현을 통해 독특한 색채감을 나타낼 수 있고, 타악기적인 요소로서 강약과 리듬을 선명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으며, 현악기적인 요소로는 현을 통해 선율적인 표현과 배음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들을 가진 피아노를 조기교육 시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감이 발달이 빠른 이 시기에 음정이 고정되어 있는 피아노를 통해 절대음감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건반에 의한 음의 배열이 시각화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악보에 있는 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 독보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근육 이완상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므로 바른 자세와 손 모양의 기초를 익힐 수 있으며 유연성을 배울 수 있다,

넷째, 오른손, 왼손, 발 그리고 눈과 귀 등 신체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은 지적이고 이성적인 면과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양쪽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 인내력과 자제력 등의 이성적 성품을 기르게 되며, 곡을 완성했을 때 자신이 음악을 이해하고 테크닉을 해결해서 연주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여섯째, 자신이 만든 음악을 남에게 들려주는 연주를 통해 표현력과 발표력이 향상된다.

7) 상계서, p.23.

일곱째, 폭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화성악기와 선율악기의 요소를 갖춘 악기로서 효과적인 선율감과 화성감을 기를 수 있다.

여덟째, 피아노 교육에서의 창조적인 활동은 풍부한 감성과 표현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아홉째, 음을 소재로 보다 높고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창조하고 구축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열 번째, 피아노 교육은 음악공부의 기초 도구로서 음악읽기, 감상, 음악적 지식의 발달, 청각과 시각감각의 발달 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열한 번째, 많은 곡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아노 조기 교육이 필수 과정이 되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피아노 조기 교육은 필요하다.

3.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의한 음악적 발달단계



최근 예술교육이 부각되고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교육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 음악교육이 후일에 인격도야와 음악미의 추구·표현기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음악교육은 지적교육이나 신체적 교육 또는 사회적 훈련 등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전인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연주가 될 만들기 이전에 음악을 통해서 생활 전체를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는 피아노 조기교육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음악의 기초적인 능력(박자, 리듬감, 음감, 기보법의 이해)을 양성하기 전에 바로 피아노 실기와 기보법을 동시에 배우게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동들은 기보법을 통해 박자와 리듬의 개념, 음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숙달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근육 조절을 통한 신체 움직임을 동시에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Piaget는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인지가 어떻게 발달되며 어떤 과정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논리적 지능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인식의 본질을 밝히는 데 공헌한 아동발달 심리학자이다. 아동은 자신과 환경간의 균형과 통합을 변화시키는 체제 속에서 비교적 일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Piaget는 이것을 평형상태로 보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 평형상태는 아동이 항상 지향하는 필연적 조건이며 동화와 조절에 의해 인지적 평형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인지구조는 성장발달 되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인지능력발달단계에 맞춰 학습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아동들이 음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배우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음악교육은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단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단계를 무시한 학습은 학습효과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Piaget는 인간의 지능 및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관찰하여 「인지 발달단계」를 만들어 놓았고, 특히 어린이의 발달을 보존⁸⁾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Piaget는 보존개념이 획득되는 6-7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을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6-7세 이후의 과정을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8) 보존이란 외형은 변해도 그 내적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로 나누었다. 각 단계에서 인지발달에 의한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감각운동기(The Sensory Motor Period: 0-2세)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각작용으로, 운동신경, 근감각 등과 함께 청각각이 발달한다. 영아가 생후 1주일이 되면 이미 소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최근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의 선율, 강약, 운곡들을 알며, 생후 4개월 된 아기는 리듬구조도 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⁹⁾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는 시각과 촉각의 협응이 처음으로 가능해진다. 이 시기는 음악적 인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며 영아들은 소리가 나는 곳에 머리카나 얼굴을 돌리려 한다.

10-18개월의 영아는 대상 영속성과 자신 이외의 다른 대상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때의 음악적 발달특성으로 영아들은 음악적 선호를 표현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음악이나 소리에 대해서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심지어 울기까지 하며 싫어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 또한, 악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좋아하며 친근한 음악을 들으면 박자가 맞지는 않지만 즐겁게 손뼉을 치고 몸을 위아래로 흔들기도 한다.

18개월-2세는 진정한 의미의 지적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구성해 낸다. 음악적으로는 소리를 적극적 탐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들리는 광고음악을 매우 즐기며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지켜 볼 수 있다. 또 리듬악기를 자신이 사용해서 연주하기도 하는데 아주 완만한 박자를 연주하기는 하나 음악에는 아직 맞지 않는 수준이다. 이 시기에는 소리나 악기연주에 많은 흥미

9) 안재신(1996), 「유아음악교육」, 교육과학사, p.103.

를 가지지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 이에 대한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기도 한다.

2세 말에 유아는 감각-운동 수준의 지능에서 벗어나 정신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유아는 자신의 몸 움직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음악에 반응할 수 있으며 몸을 튕기거나 한 바퀴 돌고,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구부리는 등 춤추듯이 음악에 대한 반응을 한다.

특히 이 시기의 유아는 분명한 리듬이 있는 음악, 즉 밴드음악이나 운율이 있는 동요 등을 매우 좋아하고 음악적 게임의 지시를 따를 수 있다. 또한 주의 집중시간도 길어져 몇 분 동안은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¹⁰⁾

2) 2단계: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

논리적 조작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라고 해서 전조작적 사고기라 하며 2-4세와, 4-7세의 두 단계로 나뉜다. 이 시기의 전 개념적인 단계인 2-4세에는 아동의 언어가 급속히 발달하게 되면서 상징적으로만 사고하던 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이 시기는 음악을 통해서 자기표현을 증가하는 시기로 유아들은 노래극화하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며 스스로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또한 박자를 지속하는 능력이 상당히 증가한다. 짧은 음악의 연주시 조용히 들을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음악에 개방적이고 아직 문화나 음악적 양식, 악기 등에 대한 선호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모든 종류의 음악에 노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유아들은 아직 자신이 들었던 음악에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10) 김명순·조경자(2000),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음세대, pp.30-31.

직관적 사고의 단계인 4-7세로 접어들면 아동의 사고는 주로 지각적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¹¹⁾

아동은 음악적으로는 혼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리듬악기를 음악에 맞춰 똑딱똑딱 두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음악적 욕구충족이 되지 못한다.

이 시기의 아동의 음악적 활동으로 중주, 합주와 중창이나 합창이 가능하다. 이러한 음악적 활동은 독자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아동에게 이해시키고 전체를 위하여 자신이 참여해야 한다는 참여의식도 고취시킨다. 또한,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혼자만의 능력보다 더욱 고귀하고 숭고한 면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주고, 단결심과 협동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전조작기 아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아중심성을 들 수 있다. 자아 중심성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본다는 것이다.¹²⁾ 또한 전조작기 아동은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 이것은 활동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이나 무생물이 등장하는 동화나 옛날이야기는 아동의 물활론적 상상력을 크게 자극하므로 아동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3) 3단계: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s Period: 7-11세)

구체적 조작기는 전조작기 사고와 형식적(논리적)사고 사이의 과도기이다. 처음으로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충분한 논리적 조작을 사용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인 보존개념의 완전한 획득으로 양, 무게, 부피의 보존이 가능하며 가역성을 획득하게 된다.

음악적으로는 셈여림표, 음표, 쉼표 등을 어떠한 순서로도 나열할 수

11) 상계서, pp.30-31.

12)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69.

있으며 피아노, 리코더, 바이올린, 실로폰 등은 가락악기이고 큰북, 작은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등은 리듬악기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음악적 보존의 획득으로 한 멜로디를 다른 악기나 다른 속도로 연주해도 같은 멜로디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또 음높이 및 리듬의 변형 아래에서의 가락에 대한 보존 능력이 있으며 높은 음, 낮은 음, 음의 간격, 음계 그리고 화음에 대한 개념획득이 가능하다.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은 수 개념이 발달하므로 음계 및 음표의 수리적인 조작이 가능해지며, 손의 근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악기를 무리 없이 다룰 수 있으므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레슨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기호가 형성되므로 아동의 음악적인 기호를 자극할 수 있는 악보읽기와 쓰기, 여러 종류의 음악듣기, 청음 놀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등의 음악 체험이 적절하고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4) 4단계: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s Period: 11세 이후)

이 단계는 구체적 조작의 발달에 의존하여 통합되고 확장된다. 구체적 조작기 사고가 논리적 사고인 반면 이것은 구체적 세계에 제한된다. 이른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징적 추론이 가능해지며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사태를 일반화 할 수 있게 된다.¹³⁾

이 시기에는 악기를 통한 음악적 경험을 하여도 좋고, 감상을 통해 음악과 항상 접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의 특징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경우

13) 상지대학교 병설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개발(1996) 「유아음악교육」, 동민사, p.31.

의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결국 문제 해결에 이르게 되는 조합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합적 사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사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연역적 사고 또한 가능해진다. 이때의 교육은 음악적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고 섬세하게 곡의 구성이나 구조를 이해시키는 분석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음악의 여러 이론들의 본격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의한 음악적 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그에 의하면 인지발달은 외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달되어지고 각 단계는 개인차에 따라 먼저 오고 나중에 오는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음악적 성장의 요인으로서의 음악성 혹은 음악적 능력 등의 음악적 제 기능은 감각이나 지각 등의 신체기관의 반응과, 감정이나 지적기능 등의 정신작용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능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하나의 기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지발달이 음악적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인지발달단계에 맞는 무리한 학습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므로, 올바른 학습이론의 정립과 각 단계에 맞는 학습내용의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조작기의 4~7세의 아동들은 청각과 반응력의 발달이 두드러지므로 체계적인 과정에 의한 음악의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학습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피아노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1. 교사의 역할 및 자질

무슨 교육이든지 교사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도 교사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피아노 교습의 성패는 그 시간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의 의도나 능력을 무시하고 장래 대중을 위한 훌륭한 연주가로 만들기 위해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지도한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의 주의력이 교습시간 끝까지 지속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음악을 꾸준히 탐구하는 의지력과 자발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만 지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도록 자극해 주어야 한다. 학생과 문제점을 같이 토론하면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습내용에 좀 더 흥미를 갖게 하며, 학생 자신의 연습과정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효율적인 교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교사의 지도방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자질 미달의 교사는 음악의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동에게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기 보다는 단순히 계이름이나 리듬을 가르쳐 주고 외우게 하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게 된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아동들이 음악적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고 피아노를 포기하고 만다.

피아노 교사는 단순히 연주를 위한 기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

생들에게 삶과 예술에 대한 미의 통찰력을 길러주고 피아노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줌으로써 학생들 내면세계에 미의 소우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피아노 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격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¹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빠른 유아들에게 인격교육은 중요하다.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아동의 음악적인 발전을 도와야 한다.

둘째, 교육자로서 사명을 가져야 한다. 가르치는 보람과 음악적 사명감을 가졌을 때 열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사랑과 애정을 갖고 인내와 이해로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의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어 학습효과를 높이게 된다.

셋째, 교사는 자신의 감정조절의 통제를 통해 평형을 유지하는 가치관으로 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예술에 대한 심오한 감각과 올바른 기교를 가져야 한다.¹⁵⁾ 연주가로서 뛰어난 기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지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템포를 늦추어서 치더라도 그 기교가 정확해야 한다.

다섯째, 늘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린이를 요령있게 다루는 것만을 유일한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더불어 연구하고 성장하는 지도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자신의 레파토리 개발과 연구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효과적인 레슨과 체계적인 연습과정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섯째, 교사는 자신의 전공분야만이 아닌 예술 전반에 대한 더욱 풍부한

14) 박찬석(1987), 전계서, p104.

15) 상계서, p.104.

한 지식뿐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가르치는 아동들에게도 더욱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피아노 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피아노 교사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으며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부모의 역할

아동의 음악적 능력과 소질을 일찍 파악하는 곳이 가정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부모는 교사에게 모든 학습을 맡겨 버리지 말고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가 피아노 학습을 함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자녀의 연습 시 TV시청이나 잡담은 연습의 방해가 되므로 자녀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방해요소를 제거하여 준다. 연습하는 방에 방음장치를 해 주고 실내 색조를 부드럽게 해 주고 조명은 알맞게 해 준다. 그리고 교육적, 정서적으로 방을 꾸며 주어 음악적 탐구 의욕이 생기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자녀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며, 음악을 통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¹⁶⁾

셋째,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지도 교사를 신뢰하고 자녀의 학습정도나 태도를 수시로 제공하여 차기 교육의 디딤돌이 되도록 협조한다.

넷째, 음악 감상을 시킴으로써 음악적 바탕을 튼튼하게 해 준다. 아동

16) 조미화(2000), “효과적인 피아노 조기교육을 위한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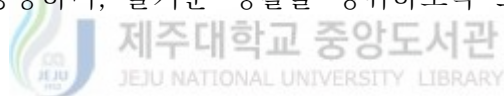
의 수준보다 약간 상위의 음악을 듣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가능성과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오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감상하는 것도 좋으나 직접 연주회장에서 연주되는 가치 있는 연주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섯째, 피아노 칠 때의 자세와 템포를 바로 잡아준다. 음악적인 내용 지도는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피아노에 앉는 자세, 피아노를 치는 자세, 허리, 어깨, 팔, 손 등을 바르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템포면에서도 직감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는지 또는 템포가 고르지 못 한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준다.

여섯째, 학습의 성장이 느리더라도 기다림의 자세를 갖는다.

일곱째, 지나친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고 칭찬을 해 줌으로서 동기유발을 일으키게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여덟째, 아동의 건강을 항상 보살펴야 한다. 이는 간접적인 보조가 되겠는데 적당한 휴양, 수면, 영양 섭취, 운동 등에 항상 유의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항상 건강하고 명랑하며,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게 된다면 자녀의 피아노 학습 결과는 좋을 것이다.

3. 교재 선택

조기 피아노 교습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지도방법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아노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다. 모든 방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하지만, 조금 더 흥미롭게 또는 단계적인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

한 프로그램 등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¹⁷⁾ 교습교재들 중 어느 교재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알맞는지 또는 효율적인지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각 교재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기본 골격을 정확히 지키며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교재를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은 신체적으로 무리는 가지 않는지, 내용이 풍부하고 아동들에게 친밀감을 주는지, 음악성을 계발할 수 있는 예술성과 기법 등이 취급되어 있는지 보아야 하며 또한 교재의 곡과 관련된 그림을 삽입하여 어린이가 연주할 때에 그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습곡마다 리듬감, 화성감, 형식감, 속도감, 강약감 등 음악적인 감각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초 교재의 선택은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유아들에게는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도입기 피아노 교본은 피아노의 기초적인 주법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손을 쓰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음악적인 이론들을 조금 첨가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내용이 주로 기술 습득이 중심적인 경향이었으나 오늘날의 교본은 이론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본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수많은 피아노 학습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기초교재 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교재의 특징들을 본 논문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1) 바이엘 피아노 교본

바이엘 교본은 초기 낭만파 시대의 독일작곡가 Ferdinand

17) 김혜경·김송옥(2001), 「피아노 교육이 어렵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과교육연구 Vol.4 No.1, p.321.

Bayer(1803~1863)에 의해 만들어진 교본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교재이다.

바이엘 교본은 기초적인 내용이 풍부하고 기능화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누구든지 연습하기에 보편적인 교재이다. 모든 면에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좁은 음역에서 넓은 음역으로 발전해 가는 매우 이론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¹⁸⁾

조성면에서는 C를 중심으로 다섯 손가락이 C-G의 5개 건반을 다루게 한 후 G-D, F-C, D-A, A-E까지의 5개 손가락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건반 및 조성감을 익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른손, 왼손 그리고 양손의 순으로 진행하게 하며 양손의 경우 처음에는 옥타브와 병행을 연습시킨 후 왼손과 오른손의 사용음역을 달리 하여 열손가락이 모두 전 범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 간다.

음의 배열면에서는 처음에는 4분음표와 온음표를 배우도록 하고 나서 2분음표, 점2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로 점차 단계별로 익혀 나갈 수 있게 조직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악곡의 형식면에서는 프레이즈가 규칙적으로 8마디 단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4마디 또는 2마디 단위로 정확히 세분되도록 되어 있어 형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도막, 두도막, 세도막, 작은 세도막, 겹 세도막 형식과 기본형식에 Coda가 더해진 형식으로 되어 있다.

화성면에서는 주로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지형은 대개 V-I으로 끝이 나는 정격 종지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독일 고전파에서 초기 낭만파 시대에 사용되었던 기능 화성의 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악곡의 형식이나 화성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교재이다.

음표의 음역면에서는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의 오선 안에서의 독

18) 황희숙(1994), “한국 어린이용 피아노 문헌 연구”, 「음악논단」 제8집, 한양대학교, p.168.

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재곡이 배치되어 있으며, 오선 위의 덧줄들이 붙은 음표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익히도록 하며, 반복학습이 되게끔 덧줄 음표의 악곡이 계속 배열되어 있어 구성이 비교적 짜임새가 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 많고 주로 왼손에는 반주를 오른손에는 선율을 일률적으로 배치하므로 해서 균형 있는 기술 연마가 어렵다. 그리고 왼손 반주 형태는 알베르티 베이스(Alberti Bass)의 형태가 주가 되어 음악 표현상의 단조로움을 가져오게 한다. 시작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왼손 연습을 분리시킴으로서 양손 연습 시에는 빨리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높은음자리표만을 가지고 제한된 음역에서 음을 사용하여 넓은 피아노 음역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조성도 C key 이외의 조성은 별로 소개되지 않아 건반에 대한 익숙함과 조표가 여러 개 붙는 조성들에 대한 친숙함을 획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1850년대에 쓰여진 교본이기 때문에 근대, 현대 음악의 양식적인 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연습곡마다 같은 음형이 반복되어 아동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든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이론학습을 고려하지 않고 연습곡의 진도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곡의 보조적 설명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며 이론을 실습할 여지가 주어져 있지 않아 이론 학습 성과도 미미한 편이다.

2) 베스틴 피아노 교본

베스틴 피아노 교본은 미국의 음악교육학자 James Bastien과 여류 피아니스트 Jane Smisor Bastien 부부가 공저한 교본이다. 이 교본은 도입 단계부터 쉬운 소나티네 정도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순히 피아

노를 배우는 교재뿐 아니라 음악의 기초 지식, 조옮김, 화성 붙이기, 창작 및 즉흥 연주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본이다.

베스틴 교재의 구성은 'Piano Lesson'이라는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로 'Technique Lesson', 'Theory Lesson'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초보 아동들을 위해 포괄적이면서도 여러 조가 단계적으로 엮여 있으며 각 단계별로 창작곡, 민속선율음악, 팝 스타일의 곡이 고루 실려 있다.

개념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깔끔한 편집과 구성, 천연색 사진과 그림들을 삽입하여 아동들이 음악적 개념을 쉽고 흥미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 곡마다 표제가 붙어 있어 아동들이 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아동들의 감각적인 흥미를 끌어 동기유발을 쉽게 하고 단계별 교재에 수록된 내용이 적어 학습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다.

이론과 테크닉의 진도가 단계적이면서도 지도에 있어 개인지도와 그룹 지도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어 아동들의 흥미와 사회성 계발에도 좋은 훈련 기회가 주어진다.

조성면에서는 같은 손가락 위치에 있는 선율이나 화음진행을 처음부터 각 조로 연주할 수 있게 하여 여러 조성을 익혀 이조시켜 연주하여 작은 단위의 학습이 폭넓은 학습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조옮김 연주와 조성감, 조표 및 친밀감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다.

악곡의 구성면에서는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춤, 놀이, 동요에서부터 민요, 찬송가, 캐롤, 축제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여러 음악적 스타일의 어법에 익숙해질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아동들로 하여금 신선함을 느끼게 하여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연주면에서는 손가락의 기계적인 훈련과 사용에만 치우치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프레이징, 다이내믹스, 아티클레이션, 음색의 조절 및 페달

까지 가르치면서 정서적이며 음악의 본질적인 면의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앙상블의 강조로 아동의 독주 능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며 합주를 통한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음으로서 음악연주에 있어 높은 주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론면에서는 다른 교본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장·단 화음은 물론 증·감 화음도 소개되고 있으며, 3화음의 전위, 7화음, 각 조의 주요 3화음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도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의 10대 학습목표는 ① 손가락의 테크닉 ② 다양한 리듬의 이해 및 체득 ③ 건반을 이해하고 12개의 조를 처음부터 배우며 ④ 초견 실력의 향상 ⑤ 이조 능력 ⑥ 주어진 선율에 화음 반주를 붙이는 능력 ⑦ 귀의 훈련과 청음 능력 ⑧ 음악전반에 관한 이론 ⑨ 모든 시대의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며 ⑩ 솔로와 앙상블 연주에 목표를 두고 있다.¹⁹⁾

베스틴 교본은 연주 기술 습득에 있어 기존 교재들에 비해 이론, 악전, 초견, 창작, 조성 등에 대해 폭넓고 다양하게 다루면서도 짜임새가 있어서 아동들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음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본이라는 점이 장점이며, 아동들의 흥미 유발과 자주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나 다양한 종류의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산만해 질 수 있으며 진도 조정이 잘못될 때에는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교사는 아동의 학습능력에 따라 이를 적절히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19) 황희숙(1994), 전계서, p.173.

3)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은 음악편집자 Williard. A. Palmer, 동요 작곡가 Morton Manus, 피아노 교육자인 Amanda Virk Letcho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으로 이 교재를 출판한 출판사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

이 교재는 출판하기에 앞서 많은 시험을 거쳐 문제점과 복잡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보급되었는데 단기간에 걸쳐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다

알프레드 교본에는 평균연령의 수준에 맞는 교재와 연령층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재가 있다.

알프레드 교본의 종류로는 레슨교재, 테크닉교재, 이론교재, 청음교재, 독주곡집 교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스틴 교재와 비슷하게 편집 구성이나 색표현이 눈에 쉽게 들어오며 그려져 있는 삽화들이 지도 내용과 잘 연결되어 있어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잘 적응할 수 있다. 초기부터 다이내믹의 개념을 가르쳐서 음악을 섬세하게 다루며 표현력 있게 연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건반의 넓은 영역을 고루 다루게 하며 검은 건반을 먼저 다루게 하여 건반의 전체 조직과 친근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보법의 면에서는 처음부터 오선보를 다루지 않음으로서 음표의 고저에 따라 피아노를 치도록 하며, 이때 음자리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자리를 지정하지 않아 여러 건반에서 연주하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조옮김 연주를 익히고 조성감의 확립과 흑건의 지배력도 획득하도록 유도한다.

음자리표도 G음자리표보다 F음자리표가 먼저 등장하며 이것은 아동들이 G음자리표는 익숙하면서도 F음자리표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처음부터 낮은음과 F음자리표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간단한 모티브를 주어서 간단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자발적인

학습과 창의력 배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알프레드 교본은 아동들에게 음악의 기본을 익히고 이해하여 스스로 음악을 느끼고 즐기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습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이 교재에 나오는 곡들은 가사를 가지고 있고, 가사가 음악의 악센트와 잘 호응하도록 고려하였으며, 표제도 흥미를 고려하여 붙여 주고 있다. 대다수의 이론을 중점으로 다룬 교재들이 음악적인 연습곡이 부족한데 반해 이 교재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곡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인 교재 내용은 반복에 의한 학습내용의 심화라는 교육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절충하여 지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 방법에 중점을 두어 중도 탈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적인 배려가 잘 되어있는 교재라 할 수 있다.

4. 레슨형태



1) 개인지도

개인지도는 말 그대로 선생과 학생과의 1:1로 이루어지는 레슨형태이다. 전통적인 피아노 레슨은 거의 개인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지금도 개인 지도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성공적인 개인 레슨은 우수한 교육방법의 실험에 자유스러울 수 있을 뿐더러 재능 있는 소수의 학생을 콩쿨에 입상시키고 개인 연주회들을 이끌어 나간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재능 있는 어린이를 키워나가는 데는 개인지도가 필요하다.

피아노의 어린 초보지도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실정은 대개의 초보자는

개인지도를 받아왔고 그가 배우는 교사의 권위 있는 교수법을 단독으로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지도는 교사 이외엔 전혀 외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습에 약간의 흥미를 돋우기는 하지만 2~3년 지나면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피아노 레슨을 그만 두는 것과 함께 피아노에 앉기를 주저하는 예가 많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도를 받아온 사람들은 즉흥연주라던가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부끄러움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피아노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그룹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 그룹지도

그룹지도란 현대적인 의미로서 종래의 1:1의 개인 레슨에서 벗어나 적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룹 테크닉을 사용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레슨형태이다.

4~7세의 어린이에게 매 시간마다 같은 곡을 완성시킬 때까지 지도한다는 것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룹지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룹지도법의 특성은 집단역동²⁰⁾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룹의 협동정신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의 능률을 올리도록 안내하는 교수법이다. 이 집단학습의 원리에 따라 집단 내에서의 집단의식·동료 간의 상호작용·경쟁심·협동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학습 능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그룹지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둘 이상의 개개인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의의를 깨달았을 경우 생겨나는 힘의 작용.

(1) 그룹 형성

어린이들의 그룹지도는 4~6명의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성취도를 증진시키기에 알맞다. 어린 학생들은 주의력이 산만해지기 쉽고, 장난을 친다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적은 그룹으로 지도를 한다면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것으로 옮기는 데 보다 유연성을 가지며, 개개인의 참여나 발표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을 형성할 때는 학생과 면담을 한다거나 간단한 음악의 배경 지식 테스트를 통하여 서로 유사한 어린이들끼리 형성하는 것이 좋다. 그룹을 형성하였어도 학생이 잘 어울려서 공부하고 있는지, 산만하진 않은지 등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2) 그룹지도의 교육자료

그룹지도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룹의 크기에 따라 피아노가 두 대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칠판, 책상, 의자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카드자료가 필요하다. 카드자료는 여러 음악적 개념을 익힐 때와 게임노래를 하는데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어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여러 가지 리듬악기를 피아노와 이용하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각 학생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 둔다.

(3) 수업목표

수업의 목표는 노래와 간단한 반주를 연주하는 능력, 리듬과 멜로디의 방향 감각, 손모양과 자세에 대한 지식, 각 손가락의 독립성과 손가락 위치의 중요성, 모든 조성에 대한 감각과 구조를 발전시켜 이해와 듣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피아노 치기가 레슨의 주요 목적이긴 하지만 부차적 활동은 학생들에게 많은 자극을 줄 것이다.

노래하기, 피아노치기, 악보 그리기 등의 혼합적인 활동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 것이며 어떤 곡조에 따른 게임 노래, 손가락 번호에 대한 노래, 단어 외우기를 위한 노래를 통해서 청각 훈련과 음색 감각의 발달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창작곡·양상블 연주와 무용 등은 아동성장에 유익한 것이라 하겠다.²¹⁾

(4) 그룹레슨의 장점

그룹레슨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제나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른 어린이와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자극을 받아 음악을 좀 더 의욕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게 되며, 또한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기르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하거나 연주 하는 일이 자연스런 행위가 된다.

둘째, 그룹학습에서 학생들은 서로 돕고 성장하게 된다. 그룹 내 학생들끼리 의식적인 모방 혹은 무의식적인 동질감에 의해 그룹 자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서로의 동료의식은 자신감과 신뢰감을 더해 주는 동시에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다른 사람의 노력을 존중하도록 하여 준다.

셋째, 그룹 안에서는 음악적 개념이나 연주법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되어지기도 하고, 서로에게서 쉽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친구들의 음악을 자주 들으면서 악곡의 음악적 내용이나 각 학생들의 연주에 나타나는 표현력 등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학생의 잠재적 음악성을

21) 정정식 역(1981), 전계서, p.89.

계발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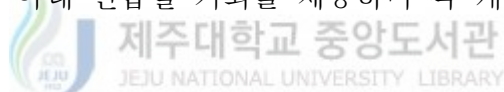
넷째,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의 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포괄적인 음악성 계발을 위한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영역이 서로 연관되어 가며 학습의 단계를 점차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

다섯째, 그룹의 협동심과 건전한 경쟁력을 통해 사교적이고 배움을 이룩할 수 있다.

여섯째, 그룹에서는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음정을 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음정을 치게 되면 화음이 이루어지고 화음이 합하여 진행된다면 훌륭한 합주가 될 수 있다. 합주시 파트를 바꾸어 연주함으로써 코어 보를 이해하는 데 기초 단계로 삼을 수 있다.

일곱째, 개인지도에서의 고립된 성격과 비교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 주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여덟째, 교사의 감독 아래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각 개인의 성취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동기를 갖게 하여 그룹에의 참여를 통한 피아노 레슨에 대해 열성을 갖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5) 그룹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많은 교사들은 그룹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막상 그룹지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룹지도에 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가 다르므로 좋은 그룹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속도로 진보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진보가 빠른 학생을 성공사례로 학생들을 격려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 번에 여러 명을 가르치므로 대량산출이란 생각을 하게 되어 학생들은 개별적 주목을 필요로 함으로 개인레슨만이 개별적 주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룹레슨에서는 개별화된 주목을 동료와 교사들로부터 많이 받는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려워하는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학생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의 차이점들을 다루기가 개인레슨보다 힘들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생들의 개별적인 차이점과 특성은 많은 흥미와 풍부함을 가져다 주며 음악적으로 박식해지고 독립하는 데 도움을 줄 다양한 학습경험을 얻게 되며 비평과정을 배우게 된다.

넷째, 다른 학생들 앞에서 연주하길 원하지 않는 학생으로 인해 그룹지도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생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은 독자적인 입장은 있어도 고립된 예술이 아니므로 그룹레슨이 좋다. 그룹레슨을 받게 되면 수업시간마다 친구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매일의 연습에 대해 더욱 건전한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개인지도와 그룹지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피아노를 교육함에 있어 개인지도나 그룹레슨 모두 각각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피아노 레슨의 이상적인 방법은 그룹과 개인지도를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이다.

그룹지도에서는 음악 이론·화성, 청각훈련, 독보력, 합주 훈련 등에 중점을 두며 학생 스스로 확실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습을 위한 개인지도에서는 주로 레퍼토리, 독보, 테크닉과 개인적인 문제

위주로 수업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준이 오를수록 능력 차가 심해지고 악곡 해설이 매우 복잡 다양하고 기교적으로도 어려운 곡을 연주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지도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초급자의 경우에는 그룹지도 시간이 많은 것이 좋다.



IV. 피아노 초기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

1. 바른 자세

1) 연주 자세

준비 자세는 그 행위를 알맞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단계가 된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아동에게 앉는 자세는 그 마음까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익히게 하여 바른 연주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의자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의자의 높이는 양 팔을 건반 위에 놓았을 때 수평이 될 수 있어야 한다.²²⁾ 만일 의자의 높이가 조절이 안되면 손목이 내려가거나 또는 위로 구부러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어깨를 긴장시켜 테크닉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항상 어깨가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까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 아동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의자나 방석, 또는 두꺼운 전화번호부나 책 등을 놓아서 어린이에게 맞는 바른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발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바닥에 밀착시켜 몸의 무게를 받쳐주도록 하고 허리를 똑바로 펴서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바닥은 평행으로 약 10cm정도 벌리고 언제든지 페달을 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취학 전 어린이는 건반을 누를 수 있는 높이로 앉게 되면 발이 올라가게 되어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어린이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 어린이의 발을 받쳐 줄 수 있는 보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22) 송정미(1994), 전계서, p.72.

좋다.

<그림 1> 아동이 피아노에 앉는 자세



자료: James W. Bastien, 「피아노 교수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정정식 역(1981), 세광출판사, p.100.

피아노와 의자의 거리는 양팔을 펴서 건반 양쪽 끝을 칠 수 있어야 하고, 팔뚝이 몸 앞을 좌우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 오른손이 대개의 경우 보다 넓은 음역을 담당하고, 왼손이 보다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반 중앙보다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앉는 것이 바람직하다.²³⁾

영덩이는 의자의 1/2 또는 1/3정도로 걸터앉아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의자를 너무 깊게 앉으면 건반을 치기 위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발을 밟는 힘이 약해져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

23) 백남호 · 김성남 공저(1999), 「피아노 교수법」, 현대음악출판사, p.80.

럽고 반대로 너무 앞쪽에 앉으면 발에 힘이 들어가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므로 피아노를 치는 자세가 딱딱해진다.

앉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서 보면대쪽을 정시하며 어깨, 팔, 손목, 손가락 그 밖의 모든 필요 없는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의자의 높이와 위치에 따라 피아노를 치는 자세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팔과 발, 손가락의 자세까지 바뀌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훈련시켜야 한다.²⁴⁾

2) 손모양과 손가락의 움직임

19세기 말까지도 손가락은 직각으로 구부리고 손등과 팔은 고정된 자세로 손끝으로만 건반을 누르도록 지도하였으나 근대에는 손을 걸을 때의 모양 그대로 자연스러운 둥근 모양을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다.²⁵⁾ 어린이에게 작은 공을 쥐는 것을 상상하게 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어린이에게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오므리게 하고 건반의 높이 보다는 손목을 들어 알맞게 조정하고, 양손이 서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므로 손목이 건반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음은 올바른 아동의 손모양이다.

24) 음악세계(2004), 「피아노 실기 지도법」, 피아노 강좌1, p.17.

25) 송정이(1994). 전계서, p.73.

<그림 2> 아동의 손모양



자료: 정정식 역(1981), 전계서, p.100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위한 모든 동작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여 줌으로써 가능하다. 만약 손가락을 완전히 구부리면 손바닥이 밑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필요 없는 힘을 가해야 하고 손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빠른 속도의 손가락 움직임이나 레가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손끝의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여 터치(Touch)에 민감하지 못하다.²⁶⁾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손을 놓으면 처음에는 힘이 없어 보이나 손에 필요 없는 긴장을 주지 않게 되므로 근육이 빨리 발달하여 오랜 연습 후에는 강하고 민첩한 손가락을 갖게 된다.

손끝이 건반에 닿는 부분에 있어 엄지손가락은 손톱 안쪽 부분이며, 다른 네 손가락은 손가락의 중심 끝인데, 여기에 반드시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손가락 운동은 제3관절을 지렛목으로 하여 내려치는 것이다. 아래쪽을

26) 송정이(1994), 상계서, P.73.

향하여 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면 센소리를 얻을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늦게 떨어지면 여린 소리를 얻게 된다. 엄지손가락만은 제3 관절에서부터 손목에 걸친 부분도 위아래로 운동할 수 있다. 또 엄지손가락은 손 전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다른 손가락 아래를 출입하는 횡적 움직임을 취하는 경우와 손등 밑에 구부린 모양으로 연주할 때가 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운동할 수 있도록 손끝에 힘을 가하여 훈련해야 한다.²⁷⁾

아동의 손모양을 성급하게, 완전하게 고치려 하면 어린이의 음악적 싹이 다치기 쉽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서서히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시정해 가도록 하며, 너무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

3) 손목의 움직임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은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손목은 항상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송정이의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에서는 손목의 움직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손목을 위 아래로 움직일 때 : 팔의 무게를 이용하여 깊고 확실한 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 슬러로 된 두 개의 음을 칠 때 처음에는 아래로, 두 번째 음은 위로 팔목을 움직이면서 연습하면 팔목의 긴장을 풀어 줄 수 있다. 이때 팔목의 움직임은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없이 건반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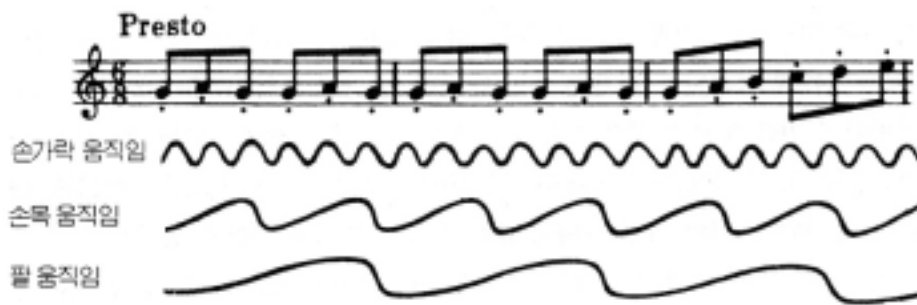
둘째, 손목을 좌우로 움직일 때 : 손가락과 팔의 무게를 건반 위에 확고히 고정시키는데 꼭 필요하다. 팔 전체가 어깨에 매어달린 상태로 힘을

27) 백남호 · 김성남 공저(1999), 전계서, pp.80-81.

빼고 앞팔과 손목이 올라가는 음을 칠 때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음을 칠 때는 왼쪽을 향하여 서로 밀고 당기듯이 움직인다. 이때 손가락은 음을 누른 후 다음 음을 누를 손가락으로 힘을 옮겨 주고 이미 친 손가락의 힘을 빼도록 한다. 윗팔과 아랫팔은 큰 동작으로 움직이면서 작은 동작을 하는 손가락 움직임을 돕는다.

다음은 손가락, 손목, 팔의 원활한 동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손가락, 손목, 팔의 동작



자료: 송정이(1994),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p.74.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아르페지오를 연속적으로 칠 때 필요하며 4~5개의 음으로 된 아르페지오가 같은 방향으로 반복될 때는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앞 팔이 원을 그리듯 회전하게 된다. 또한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자리를 바꿀 때도 같은 손목의 움직임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손목이 회전할 때 : 이 동작은 트릴 또는 왼손의 알베르티 베이스(Alberti bass)나 옥타브 트레몰로(Octave tremolo)를 연주할 때 필요하다. 팔꿈치의 힘을 빼고 앞팔(팔꿈치로부터 손목까지)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손목을 돌려준다. 팔꿈치와 손목의 힘을 빼지 않고

연주하면 음이 고르게 눌러지지 않으며 손목에 긴장이 가해지므로 원활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빠른 템포의 연주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손목 움직임은 도약 음들을 칠 때에도 쉽게 손을 옮길 수 있어 편리하다. 코드와 스타카토를 칠 때에도 손목을 원활하게 움직여서 근육의 긴장감을 없애주어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팔이 경직되었을 때는 팔을 떨어 뜨려보거나 위로 들어 올려주어 굳은 팔을 풀어 유연하게 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손목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손목의 움직임



자료: 전개서, p.76

이제까지 연주 자세와 손모양과 손가락, 손목의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피아노는 손가락의 움직임으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몸 중심의 힘이 손가락 끝까지 이어지도록 연주해야 한다. 그런데 굽혀지는 부분이 많을수록 힘이 굽혀지는 쪽으로 나누어지면서 몸 중심의 힘이 손가락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건반을 누르게 되어 딱딱하고 울림이 없는 소리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의자에 올바르게 앉아 힘을 빼고 자

연스러운 자세로 바른 손모양과 손목을 사용함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약간의 불안정도 연주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몇 번이고 고쳐 앉아서 편안한 느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리듬교육

리듬은 음악의 토대가 되고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정한 규칙에 지배되는 셈여림의 진행이나 변화 있는 장단의 진행, 즉 수평적 진행의 질서 있는 운동을 말한다. 심장의 고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듬은 음악을 형성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의 연주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범칙은 90%가 리듬적인 것이며 또한 음가(셈표까지 포함해서)가 그 가치대로 연주되지 않아서 오는 과오라고 할 것이다.²⁸⁾ 그러므로 리듬의 올바른 습득은 음악적 기초학습의 요체로서 리듬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리듬감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리듬은 일찍부터 훈련시켜주는 것이 좋다.

리듬은 박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정한 박자를 기반으로 하여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 리듬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때는 박자와 같거나 비슷하며, 당김음처럼 박자의 강약의 원칙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강약의 위치와 정확한 리듬의 분할, 주기적인 박자에서의 리듬의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필요하다.²⁹⁾

아동에게 리듬은 말하기와 신체표현을 통해 학습시킬 수 있다. 아동들은 걷거나, 뛰거나, 손뼉을 치거나, 노래하는 등 신체동작을 하면서 자연

28) 박찬석(1987), 전계서, p.60.

29) 박서미(1996), “조기 피아노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성”,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41.

스럽게 리듬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몸에 익힌다. 아동들이 잘 아는 노래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을 택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다.

먼저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음표의 길이를 셀 수 있다.³⁰⁾

온음표(축구공처럼 생겼네) - “온음-표를-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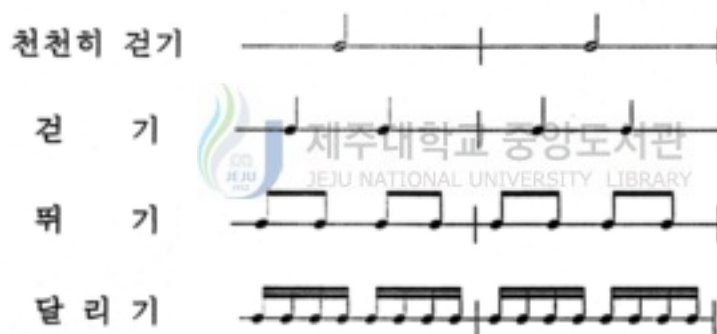
2분음표(깨끗한 얼굴이네) - “2분-음표”

4분음표(더러운 얼굴이네) - “4분”

8분음표(2개의 4분음표가 손잡고 있네) - 2개의 8분음표를 줄여서
“두-팔” 이라고 센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걷기, 뛰기, 달리기의 신체동작을 통해서도 음표의 개념을 익힐 수 있다.

<그림 5> 신체동작을 통한 리듬 훈련



자료: 김은주(2002),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 리듬지도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39

30) James W. Bastien,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 역(2003), 세광출판사, p.90.

길고 짧음에 대한 개념은 리듬을 부르거나 발로 구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음표 노래 부르기와 박수치기

노래 :	4분	4분	2분음표	두박	두박	2분음표
손뼉 :	치고	치고	치고있고	치고	치고	치고있고

자료: James W. Bastien,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 역(2003), 음악춘추사, p.91

<그림 7> 음표 노래 부르기와 발 구르기

노래 :	4분	4분	2분음표	두발	두발	2분음표
발구르기 :	차고	차고	차고있고	차고	차고	차고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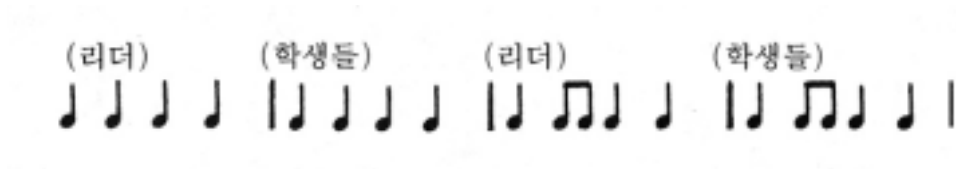
자료: 상계서, p.91

한 학생이 한 음표에 어떤 리듬을 치는 동안 다른 학생은 박자를 노래 부르며 손뼉치기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 어린이가 어떤 리듬을 치게 한 다음 다른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응답하는 교육 방법은, 리듬 개발에 아주 효과적이다.³¹⁾ 각 어린이가 번갈아가면서

31) 상계서, p.92.

리더가 되어 리듬을 먼저 치면, 다른 아이들이 메아리처럼 똑같이 따라하게 한다.

<그림 8> 번갈아가며 따라 부르기



자료: 상계서, p. 92

그리고 손뼉을 쳐서 리듬에 응답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연속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독보와 초견

1) 독보



독보는 피아노에 있어 어느 수준의 학생이었건 일단 작품을 대하면 누구나 봉착하게 되는 난관으로 피아노 학습과 연주를 위하여 먼저 길러져야 하는 것이다.

악보를 읽는다는 것은 문장의 내용을 알고 읽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피아노의 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 언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배우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이 음악을 배우는데 있어서도 악보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독보를 잘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 음악의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음악의 기초지식이 없으면 작

품을 이해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음악 이론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음표, 쉼표, 박자, 리듬, 멜로디, 템포, 음악의 강약, 임시표, 짤막한 노래 등에 관해서 배워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독보를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³²⁾ 기준음을 주고 기준음의 순차음과 도약음을 쳐보는 것을 되풀이 해 봄으로써 피아노의 감각을 키워 학생들 마음속에 건반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훈련함으로써 학습자는 악보와 건반을 번갈아 보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게 되고 노래가 끊기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참된 독보력이란 음표와 리듬 그리고 다른 음악적 표시를 통해 작곡자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간단한 곡이라도 곡이 주는 느낌을 어린이와 함께 찾아보아야 한다.

새로운 곡을 접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면 도움이 된다.

- ①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리듬을 가르치며, 노래를 하고, 그 노래에 맞춰 리듬을 손뼉 쳐 본다.
- ②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손가락 번호를 노래하는데 피아노 뚜껑을 닫고 손가락을 허공에서 쳐보도록 한다.
- ③ 연주를 시작하기 전 양손의 자리를 확인시켜 준다.
- ④ 눈을 책에 고정시키도록 한다.
- ⑤ 손가락 번호나 계이름을 부르면서 연주하도록 한다.

독보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익숙하게 하려면 많은 연습과 인내가 요구되므로 교사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32) 정정식 역(1981), 전계서, p.109.

2) 초견

초견은 한 작품을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 초견을 잘 하기 위해선 음악적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한데 그 능력은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방금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초견을 할 때 사용하는 곡은 배우고 있는 곡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단계의 곡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짧으면서도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 다양한 화음, 리듬들이 고루 포함된 것이 좋다

초견연습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도록 한다.

연주 전에 반드시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도록 해야 한다. 이때 템포, 조성 및 조성의 변화, 박자 및 변화, 음자리표, 곡의 성격 및 특징, 곡의 구조, 리듬, 선율, 화성적 양식 등의 음악적 어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연주하고 있는 부분이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가 나타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게 연습하여야 한다.

4. 시창과 청음



1) 시창

시창은 Sight-Singing이라고 하며 악보를 보고 그 가락을 부르는 것으로 미지의 곡을 악기나 교사의 도움 없이 계이름이나 음이름으로 읽음으로써 그 리듬과 음정을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Sight-Singing의 정의를 하버드 음악사전에서도, Piece에 대한 사전 준비와 연습이 없이 처음으로 보고 읽고, 음악을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시창법에는 상대음감을 바탕으로 하는 계이름 창법(이동 Do법)과 절대

음감을 바탕으로 하는 음이름 창법(고정 Do법)이 있다.

어린이들은 악보를 보고 어떤 리듬과 가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아노 없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다가 피아노를 쳐주면 피아노 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교육이 기계적이고 습관적이며 의존적임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시창은 감각적 기호와 악보의 이해 및 가창의 기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창은 악보 보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음정과 리듬을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소리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게 되며, 음과 음 사이의 높낮이를 느낌으로써 음정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노래를 하면서 어디서 숨을 쉬는지 파악을 하게 되어 프레이징(Phrasing) 감각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준다.

시창의 훈련과 숙달은 어떠한 음악가에게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이 시작되는 초기 때부터 시창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청음

청음은 귀의 훈련을 위한 것이며 가락을 듣고 리듬, 박자,조를 분간하여 악보에 옮겨 쓰거나 화음 하나하나의 음이름을 알아내거나 또는 받아 쓰기를 말하며 이 외에도 귀로 들어서 음을 분간하는 능력의 연습을 청음 연습이라고 한다.³³⁾ 이것은 음악의 기초훈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청음훈련은 음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리듬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음정과 이음을 오선 위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것을 충분히 훈련한 뒤에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단선율과 가락을 받아 적게 하여 리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청

33) 국민음악연구회(1967), 「음악대사전」, p.398.

음은 많이 듣고 노력할수록 발전될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부터 시작하여 많은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창과 청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시창과 청음의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겠지만 외국 관광길에 오른 관광객이 그 나라의 언어를 들을 수도 없고 그 나라의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경우가 바로 시창과 청음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음악 예술에 접하는 경우와 같다.

음악을 읽고 이해하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이해하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시창·청음 능력이란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으로써 음악교육의 초기부터 철저히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5. 창작 및 즉흥연주의 지도

모든 아이들은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다. 누구의 도움이나 학습이 없이도 혼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레코드에 귀를 기울이며 즐거워하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일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아동들에게 보다 발전된 창작과 즉흥연주를 이끌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작학습에 있어서 먼저 각종 음표와 쉼표의 개념을 익히게 한 다음, 5선에 의한 학습으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첫째줄 만으로 지도하다가 점차로 둘째줄, 셋째줄 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고 난 다음에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를 그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줄만 가지고도 도, 레, 미, 파, 네 음을 적는 것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마디 내에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멜로디 만들기

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줄로 발전되면서 악보에 대한 자신감과 창작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특정한 소리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하늘의 천둥소리, 세차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메아리 소리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피아노 건반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훈련은 창조력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많은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역할이란 원래 아이들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존중할 뿐 아니라 북돋아 주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6. 피아노 주법

1) 톤과 터치

성악가에게 있어 아름다운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이 피아니스트 역시 아름다운 톤과 터치를 갖는 것은 피아노 테크닉의 필수 조건이다.

톤이란 하나의 개별적인 음이 소리 내어야 할 여러 가지 음색을 말하고 이러한 음색을 만드는데 필요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터치라고 한다. 톤은 한 음만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여러 개의 예술적 소리가 합하여 이루어진다.³⁴⁾

피아노 교육자 죠셉 레빈은 아름다운 톤을 만드는 비결은 연주자가 아름다운 음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며 이러한 음감은 예민한 귀의 판단으로 얻어진다고 하였으며 음질을 분별할 수 있는 재능이 없더라도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34) 송정이(1994), 전계서, p.78.

아름다운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손가락은 단단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한 다음 건반을 누를 때 손가락의 끝보다는 탄력 있는 근육 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손가락 근육만으로는 좋은 소리를 내기가 불가능하며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무게가 가중되어야 하므로 손목의 긴장을 없애고 팔의 무게를 서서히 밑으로 떨어뜨려 주어야 한다. 만일 손목은 굳어있고 위에서 내리치는 힘만으로 건반을 치게 되면 톤은 거칠고 음의 진동이 길지 못하여 빈약한 소리로 변하고 만다. 음량은 손이 건반에 와 닿는 속도로 결정되며 햄머가 현을 움직이는 충격이 빠를수록 음량은 커진다. 손가락은 언제나 속도와 무게를 조절해 가며 건반의 밑바닥까지 깊이 누르도록 해야 하며 이는 예민한 손끝의 감각으로 감지될 수 있다. 만일 한 음을 오래 지속하여야 할 때는 손목을 위로 돌려주면서 팔의 긴장을 풀어 주어 손가락이 계속 깊이 소리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가락은 각각 그 형태와 길이, 힘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이상적인 터치를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터치는 팔꿈치의 위치, 손의 자세, 손목의 활용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겠다. 특히 팔꿈치의 힘에 의해 손가락 끝에 걸리는 힘의 중심을 더하고 뺄으로써 모든 음이 분간 되어진다고 하겠다.

피아노 연습 시 건반으로 던지는 힘이 약한 어린이에게는 건반 가까운 위치에서 터치하는 방법을 연습시킴으로 무익한 힘을 피하고 균등한 힘을 분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음의 억양을 효과 있게 할 때에는 건반에서 손가락을 높이 들고 터치하는 연습을 시킨다.

터치의 방법에는 피아노 쪽에서 자기 앞으로 끌어넣는 터치와 자기 앞에서 바깥으로 내치는 터치도 있다. 첫 번째의 터치 방법은 온화하고 내면적인 음, 즉 레가토나 특히 여린 음에 사용되는 터치이며 두 번째의 터치 방법은 강하고 격렬한 음에 사용되는 터치이다. 터치의 방법은 다양하

므로 기본적인 터치 방법을 익힌 다음에 음악의 흐름에 따라 상황에 적절한 터치를 적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던져 버리듯이 마구 건반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주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레가토(Legato)

레가토는 피아노 학습에 있어 기초적인 주법이다. 이것은 하나의 건반을 칠 때 그것을 유지하고, 다음 건반을 타건할 때 처음 음을 풀어 주는 연주법을 말하는 것이다.³⁵⁾

레가토 연주는 단지 손가락 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서 손끝까지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레가토를 할 때 손목이 굳어 있으면 유연한 연주를 할 수 없다. 손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음의 진행에 따른 손목의 부드러운 움직임도 필요하다.

레가토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연습하는 것보다 한음 한음 천천히 연습하여 음과 음사이의 틈이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학습자는 자신이 치는 음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레가토를 설명할 때는 걸음과 비교하여 한발을 땅에 두고 다른 발을 드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처럼 한음이 연주되고 다른 음이 연주될 때까지 첫 번 음을 잡고 있다가 그 음을 풀어 주는 식으로 피아노를 실제로 연주하면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한번은 레가토로, 한번은 레가토가 안 되게 학습자에게 쳐주어서 학생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도록 한다.³⁶⁾ 어린이들은 손가락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손이나 팔을 흔들어서 치게 되어 음과 음의 연결이 깨끗하지 못하고 음의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천천히

35) 정정식 역(1981), 전계서, p.116.

36) Last, Joan, 「영 피아노 교수법」, 김수경 역(1995), 음악춘추사, p.21.

연습시켜 손과 팔의 불필요한 흔들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스타카토(Staccato)

스타카토(Staccato)란 Staccare의 과거분사로서 ‘음을 끊어서 연주하다’라는 이탈리아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전 세계 공통어이다.³⁷⁾ 그러나 무조건 짧게 치라는 것은 아니다. 스타카토들도 종류가 있는데 그 이름에 따라 연주하는 음의 길이도 다르다.

스타카토의 종류는 음표 위나 아래에 \cdot , \vee , \bullet 를 붙여서 표시하는데 표시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스타카토가 생긴다.

- ① 스타카토는 음의 위나 아래에 \cdot 이 붙어 실지 음길이의 $\frac{1}{2}$ 만 연주하고 $\frac{1}{2}$ 은 쉬는 것이다.
- ② 스타카티시모는 음의 위나 아래에 \vee 이 붙어 실지 음길이의 $\frac{1}{4}$ 만 연주하고 $\frac{3}{4}$ 은 쉬는 짧은 스타카토이다.
- ③ 메조 스타카토는 음의 위나 아래에 \bullet 이 붙거나 스타카토에 슬러가 표시되어 실지음길이의 $\frac{3}{4}$ 만 연주하고 $\frac{1}{4}$ 은 쉬는 것이다. 이것은 논레가토라고도 하는데 스타카토와 레가토 양쪽의 터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카토의 주법상으로도 팔 스타카토, 손 스타카토, 손가락 스타카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³⁸⁾

- ① 팔 스타카토는 앞팔(손목과 팔꿈치 사이)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앞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있는 스타카토를 낼 때 또는 논레가토라고 악보상에 표기된 것을 연주할 때 사용한다.
- ② 손 스타카토는 손가락 스타카토와 팔 스타카토 중간 정도의 크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타카토이다.

37) 이진영(1995), 「창조적 피아노 교수법」, 예성출판사, p.174.

38) 상계서, pp.177~178.

- ③ 손가락 스타카토는 음표가 많은 프레이즈를 연주할 때 손가락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손가락 관절들을 사용하기에 가볍고 얇은 톤을 얻을 수 있다.

스타카토는 작곡가의 작품과 곡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주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아동에게는 기본적인 주법에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이 좋고 비유를 들어서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가토를 걷는 것에 비유했듯이 스타카토는 깡충깡충 뛰는 것에 비유해주거나 공이 튀어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면 스타카토의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4) 프레이징(Phra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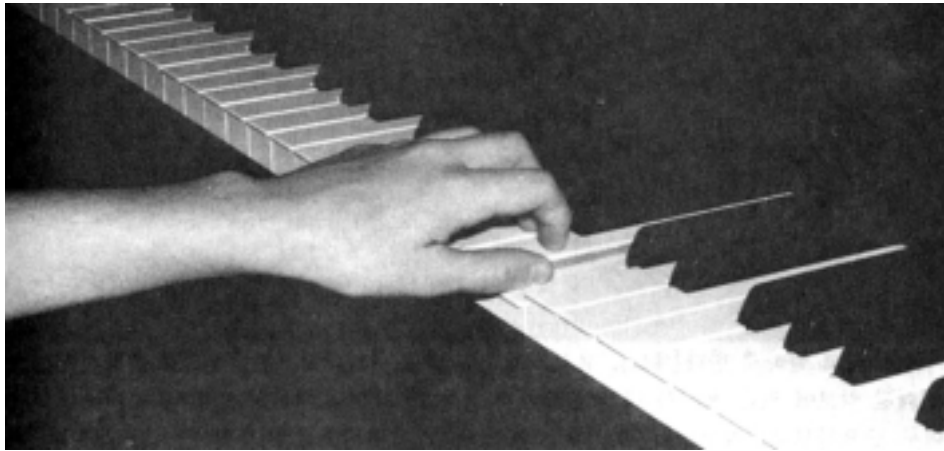
프레이즈란 음악적인 최소의 단위로서 마치 언어의 문구와도 같은 것으로 선율의 동기나 주제와 같은 작은 악구를 말한다. 프레이징은 이들 음악적인 악구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멜로디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³⁹⁾

프레이징의 처리는 악곡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징에 대한 지도는 피아노를 접하는 초기부터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다.

피아노에서 프레이징의 표현은 손과 손목, 팔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프레이징을 잘 형성하는 버릇은 쉽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는 계속해서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건반에서 손목을 약간 낮추어 떨어뜨리고 나서, 손목을 약간 높여서 건반에서 손을 떼는 모양을 보여준다.

39) 송정이(1994), 전계서, p.30.

<그림 9> 손목을 낮게 한 위치



자료: 송지혜 역(2003), 전개서, p.113

<그림 10> 손목을 높게 한 위치



자료: 상계서, p.113

그리고 학생으로 하여금 프레이징을 말하도록 한다. 즉, 스타카토는

“위로”(up), 긴 음이나 이음줄일 때는 “아래로”(down), 프레이즈의 끝부분에서는 “떼어”(off)라고 말하게 한다. 음악기호를 말로 나타내고 손동작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악보에 있는 표시를 따라 연주하게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⁴⁰⁾

<그림 11> 말로 표현하기



자료: 상계서, p.114



프레이징을 가르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아래-위(down-up), 떨어뜨리고-풀어주고(drop-release), 떨어뜨리고-굴린다(drop-roll:피아노를 향해 굴리면서 동시에 들어 올린다는 뜻), 화살표를 사용해서 내리고-올리는 모양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40) James w. Bastien,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 역(2003), 음악춘추사, p.114.

<그림 12> 손목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화살표



자료: 상계서, p. 114

프레이징을 처음 배우게 될 때는 짧은 슬러로 이루어진 것들이 좋으며 끊어지는 곳과 시작하는 머리 부위에서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손을 건반으로부터 떼어야 한다. 손을 건반으로부터 떼고 올려서 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5) 스케일(Scale)과 아르페지오(Arpeggio)

모든 피아노곡의 기본적인 단위는 음들이 모인 것으로 그 성격을 살펴보면 코드, 아르페지오, 스케일 등으로 형성되어 나타난다. 거의 모든 곡의 구성에 있어 스케일이 들어가 있음을 볼 때 스케일 연습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스케일 연주에서는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차하는 다른 손의 민첩성이 필요하다. 스케일 연습에 있어 손가락의 건반의 일정한 위치에만 닿도록 연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건반 안으로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바꾸어 줄 때 새끼손가락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손가락도 긴장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모든 음계를 4옥타브에 걸쳐 두 손으로 옥타브 또는 3도, 6도 및 10도

로 치며 왼손과 오른손을 반진행으로 해서 3옥타브로 치는 것을 곁들여
서 치면 매우 유익하다. 그리고 빠르기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피아노 주
법을 레가토로 혹은 스타카토로 치기도 하고 셈여림 등의 변화를 주면서
치면 흥미를 가지고 연습하게 될 것이다.

아르페지오는 스케일보다 넓은 간격으로 건반을 건너뛰기 때문에 팔꿈
치를 중심으로, 윗팔을 올라가는 음은 몸의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음은
몸의 안쪽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아르페지오도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엄지
를 다른 손가락 밑에서 다음 위치까지 바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페지오는 음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력과 정확성을 갖
고 연습해야 한다.

6) 트릴(Trill)

트릴이란 작은 음표를 이용하여 아기자기하게 꾸며주는 것으로 악곡의
가락을 아름답고 광채있게 하고 정취있게 꾸미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을
길게 연장하는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장식음 즉 꾸밈음을 사용한
다.⁴¹⁾

트릴의 연주에 있어서 먼저 트릴에 분은 음에 포함되는 음표의 수와 빠
르기를 정한 후 운지법을 결정해야 한다. 트릴을 고르게 연주할 수 있는
운지법으로는 오른손의 2-4, 3-4와 왼손의 4-2, 3-2가 많이 사용되며
트릴 도중 디미누엔도를 할 경우 강한 손가락에서 약한 손가락으로 바꾸
는 것이 좋으며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한 손가락들이 같이 움직일 때 좀
더 치기가 쉽고, 빠른 템포의 트릴은 2-3을 사용하고 긴 트릴은 1-3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⁴²⁾

트릴은 손가락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윗팔과 앞팔의 균형있는 움직임

41) 상계서, p.193.

42) 송정이(1994), 전계서, p.78.

임으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앞팔과 손목을 돌리면서 가볍게 쳐야 한다.

어린이들이 트릴을 연주할 때 빨리 쳐야 한다는 선입감이 작용하여 음을 정확하게 누르지 않아 음이 지극히 미약하고 음빛깔이 빈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주의하며 지도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열이 높아지고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음악 교육은 자주적, 창조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인간 교육의 역할로서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 교육을 시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악기는 피아노이다. 피아노는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의 세 분야의 기능을 고루 구비하고 있어 음악적 소우주적인 장점을 가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악기이다. 피아노를 통한 조기교육은 음감을 발달시키고 독보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근육의 이완상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바른 자세와 손 모양의 기초를 익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을 다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양쪽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감과 성취감 등을 가지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보편성을 가진 피아노를 통한 조기 교육을 효과적으로 함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인 교사와 부모의 역할, 교재선택, 레슨형태를 살펴보았고, 효과적 학습내용으로 바른 자세, 리듬교육, 독보와 초견, 시창과 청음, 창작 및 즉흥 연주의 지도, 피아노 주법 등을 제시하였다.

피아노 학습을 위한 기본적 요소로서 첫째는 교사의 역할 및 자질이다. 교사는 학생이 학습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사명을 갖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하며 늘 연구하는 태도로 단순히 연주를 위한 기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술에 대한 미의 통찰력을 길러주고 피아노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로는 부모인데, 부모

는 자녀의 학습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고 칭찬을 해 줌으로 동기유발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요소로 교재 선택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학원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인 바이엘 피아노 교본, 베스틴 피아노 교본,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들의 구성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교재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네 번째 요소는 레슨 형태인데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개인지도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룹지도를 병행한다면 그룹지도의 장점들을 살려 더욱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은 첫째, 연주 자세, 손모양과 손가락의 움직임, 손목의 움직임 등이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음악의 토대가 되고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리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리듬은 박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정한 박자를 기반으로 하여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리듬은 강약의 위치와 정확한 리듬의 분할, 주기적인 박자에서의 리듬의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에게 리듬은 걷거나, 뛰거나, 손뼉을 치거나, 노래하는 등 신체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독보와 초건을 살펴보았다. 독보를 잘 하기 위해선 음악의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직접적인 독보를 시작하기 앞서 기준음을 주고 기준음의 순차음과 도약음을 쳐보는 것을 되풀이 하게 함으로써 피아노의 감각을 키워 아이들 마음속에 건반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독보력이란 음표와 리듬 그리고 다른 음악적 표시를 통해 작

곡자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간단한 곡이라도 곡이 주는 느낌을 어린이와 함께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초견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곡을 선택할 때 아동이 배우고 있는 곡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단계의 곡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짧으면서도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 다양한 화음, 리듬 등이 고루 포함된 것이 좋다.

넷째, 시창과 청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창은 감각적 기호와 악보의 이해 및 가창의 기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창은 악보 보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음정과 리듬을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시창을 잘 배우게 되면 소리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게 되며, 음과 음 사이의 높낮이를 느낌으로써 음정관계를 이해 할 수 있으며 노래를 하면서 어디서 숨을 쉬는지 파악하게 되어 프레이징 감각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청음은 음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리듬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음정과 이름을 오선 위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것을 충분히 훈련한 뒤에 아동들에게 간단한 단선율과 가락을 받아 적게 하여 리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창과 청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선 안 된다. 이는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이므로 음악 교육의 초기부터 철저하게 교육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창작 및 즉흥연주의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창작학습에 있어서는 먼저 각종 음표와 쉼표의 개념을 익히게 한 다음, 오선에 의한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첫째 줄 만으로 지도하다가 점차로 둘째 줄, 셋째 줄 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고 난 다음에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를 그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천둥소리, 빗방울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메아리 소리 등 어떤 특정한 소리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을 하는 훈련은 창조력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많은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피아노 주법으로 톤과 터치, 레가토, 스타카토, 프레이징,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트릴을 제시하고 본문에서 각각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였다.

헝가리 음악교육가인 코다이는 4-7세까지의 유아기야말로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불어 넣어 주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라 확신했다. 이 시기는 음악능력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감각능력이 급속히 발달하게 될 뿐 아니라 감각기능 중 청각기능은 6세경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된다. 따라서 조기교육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국민음악연구회(1967), 「음악대사전」.
- 김명순·조경자(2000),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음세대.
- 박찬석(1985),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박찬석(1987) 「피아노 교수학」, 세광음악출판사.
- 상지대학교 병설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개발(1996), 「음악교육」, 동민사.
- 성경희(1988),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과 특성」, 세광음악출판사.
- 송정이(1994),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 안재신(1996), 「유아음악교육」, 교육과학사.
- 오세집(1998), 「피아노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도서출판 상지원.
- 이전영(1995), 「창조적 피아노 교수법」, 예성출판사.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송정이(1994),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 임규혁(2001), 「교육 심리학」, 학지사.



< 연구 논문 >

- 김선애(2002) “초급 피아노 교재의 비교 분석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안형(2000), “효율적 피아노 그룹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주(2002),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명자(2000), “피아노 초기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미(1998), “기초 피아노 교육의 포괄적 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

교 교육대학원.

배성현(2003), “Piaget의 인지발달론을 중심으로 한 아동의 초기 피아노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지영(2003), “아동기 피아노 교수법과 동기 유발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은주(2001), “유·아동기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법”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장나영(2001),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 지도방법”.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미화(2000), “효과적인 피아노 조기교육을 위한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술 논문집 >

김혜경·김송옥(2001) 「피아노 교육이 어린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교육연구 Vol.4 No.1.

황희숙(1994), “한국 어린이용 피아노 문헌 연구”, 「음악논단」제8집, 한양대학교.

< 번역서 >

Erzebet Szonyi, 「코다이 음악 교수법」, 조흥기 역(1994), 도서출판 다라.

Last, Joan, 「영 피아니스트 교수법」, 김수경역(1995), 음악춘추사.

James W. Bastien, 「피아노 교수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정정식 역(1981), 세광출판사,

James W. Bastien,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 역(2003), 음악춘추사,



<Abstract>

Study on an efficient guidance plan for early piano education

Yang, Eun-Hee

Mu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un-Bang

As the standard of living of our country is elevated, the desire for education increased and the interest in musical education was also raised. Especially, there are growing number of parents who want to have their children educated in music as early as possible, because parents don't desire that their children should become experts in music but desire that they could be given emotional cultivation and self-expression, etc. through musical education.

The typical instrument in conducting early musical education is a piano. A piano evenly has the functions of a string instrument, a percussion instrument and a keyboard instrument, so that it has universal musical advantages and the most basic and general instrument. In addition, children uses both of right and left hands, so their both brain can equally develop and learning children can have a sense of confidence and accompl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children aged between 4-7 which,

musical scholars think, is the time for most children to use a piano for the first time and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early musical education, because children, during this time, not only rapidly develop in their sensual ability, the most basic element in forming musical ability, but also the auditory function among sensual functions already develops at the age around 6 just as adults.

Chapter II of this paper, under the background of early piano education, examined the concept of a piano instruction method, the necessity of early piano education and musical development stages by Piaget's recognition development stage.

Chapter III proposed the basic elements for piano learning. The first element is the role and disposition of a teacher. Since a teacher has a great effect on pupil's learning, a teacher, with a sense of duty as an educator, should have pupils feel emotion, always study so that pupils may have an insight into beauty and guide pupils so that they can feel and express, for themselves, beauty through a piano. The second element is parents, who must not entrust a teacher with all of their children's learning but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children may play a piano merrily and praise children regardless of progress of learning. The third element is selection of a textbook, and in this paper, I described the contents of piano textbooks widely used in our country such as Beyer piano textbook, Bastien piano textbook and Alfred piano textbook and looked at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ose textbooks in order to help select an appropriate textbook. The fourth element is a lesson type, individual instruction and group instruction will be described. Usually, in an academy, an education is conducted centering around individual instruction, but, carrying out individual instruction and group instruction side by side utilizing the merits of group instruction, more effective piano

education could be conducted.

In Chapter IV, first, I described what posture is appropriate as means for effective learning guidance to early piano education in relation to performance posture, hand shape and movement of a finger and the wrist.

Second, I looked at how rhythm education,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ming the basis of music, should be conducted. Rhythm requires the exact location of accent and exact division of rhythm and a variety of types of training in periodical beat. Especially, it is more effective to have children naturally feel and express rhythm doing physical action such as walking, running, clapping one's hands or singing a song.

Second, reading music and a first view was examined. It can be said that true ability to read music is to understand the music of a composer through note, rhythm and other musical mark, so it is desirable to look at with children the feeling a tune can represent even if it is the simplest one. In teaching a first view, if a teacher selects a tune, it is better to use whose level is a little lower than that a child learns at that time and which is short but evenly includes sharp, flat, natural, various chords, rhythm, etc.

Fourth, sight-singing and a clear voice was examined. First of all, sight-singing is not impossible unless sensual signal, understanding a musical note and singing skill aren't carried out side by side. sight-singing advances the ability to see a musical note and is a good way to learn a musical interval and rhythm. Proper learning of sight-singing advances the sense of sound and can feel high and low between sound, so that a child can understand musical interval relation and grasp where he/she must breath singing a song, resulting in helping a child improve phrasing sense. Also, regarding a clear voice, have children correctly recognize a musical interval, exactly judge rhythm and write a musical interval and

name on a music sheet. After teaching children those things, let children understand rhythm more concretely by having them write simple homophony and a key. Then their listening ability will increase. sight-singing and a clear voice have very close relation, and either must not be disregarded. They are most fundamental and basic ability, so they must be thoroughly taught from the beginning of musical education.

Fifth, a method of creation and impromptu performance was proposed. In creation learning, it is better to have children understand the concept of various notes and rests before conducting learning by the staff. In addition, if children are trained to express certain special sound such as thunderstorm, pattering of raindrops, sound of car passing by, an echo, etc., it will be helpful to not only their raising creation ability, but their expressing much portion of life.

Sixth, I proposed, as piano execution, tone and touch, legato, staccato, phrasing, scale and arpeggio, a trill.

Early piano education must not stress a technical aspect of performance but focus on cultivation of musicianship. Accordingly, study on an effective guidance method of early piano educa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helpful to conducting appropriate and effective musical education for childre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